서진건설 선정…어등산 관광단지 본궤도

세번째 공모끝에 최종 결정
광주도시공사와 협의 거쳐
사업협약·법인설립·환경평가
착공 시기 내년 하반기 될 듯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서진건설이 선정되면서 지난 10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기는 했지만,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본계약' 절차가 남아있고, 이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조성사업계획 수립,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착공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업체가 사업협약 체결 전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한 전력이 있어 서진건설과 광주도시공사가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제3차 공모 평가 결과, (주)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사업계획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주)서진건설이 협상적격자로 평가됐고, 사업계획서 및 사업이행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주)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주)서진건설은 사업시행자인 광주시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서진건설은 유원지 부지 41만7000㎡에 총사업비 4816억원을 투자해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어등산 일원에 객실 160개를 갖춘 5성급 특급호텔을 건립하고 ▲야외이벤트광장(페스타스퀘어) ▲갤러리파크▲스트리트몰(유통상가) ▲스포츠테마파크(운동·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급레지던스 성격의 생활형숙박시설 314실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순 광주시 관광과장은 일각에서 서진건설 측의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 "서진건설 측이 '시중은행과 증권회사 각각 한 곳이 출자자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서진건설의 사업계획 내용과 의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24년에는 군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된 어등산이 체류형 관광단지로 재탄생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 유원지 등 놀이시설,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외에는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 부지 일원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광주시는 '어등산 일원 41만7000㎡에 총사업비 4816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유통상가, 스포츠테마파크, 예술품 전시 및 작업공간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사업제안을 한 (주)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3일 발표했다.

동구 학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광주시 사업추진 어렵다 판단
봉선라인모아 등 3곳 곧 해제

광주시 동구 학동 2구역(남광주역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남구 봉선라인모아아파트 등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3곳도 이르면 8월께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조합 설립이 여태 안됐거나 사업성 결여,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당장은 어렵다고 광주시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동 2구역(55-57번지 일원 3만422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학동 2구역은 지난 2004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2006년 1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으나 현재까지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감안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또한 해당구역은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국비 26억원 투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정비사업 목적 달성도 어려웠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직권취소를 예고했던 남구 봉선라인모아·봉선명지맨션·진월신흥타운 등 재건축 정비사업 예정지 3곳에 대한 직권해제 결정도 이르면 8월께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봉선라인모아(87년 준공, 1433세대)·봉선명지맨션(88년 준공, 419세대)·진월신흥타운(87년 준공, 363세대) 등 정비사업 예정지 3곳은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면서 직권 해제될 상황에 놓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 대상지는 재건축 사업 관련 주민갈등도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학동 2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고, 재건축 관련 정비예정구역 3곳도 관할 구의회 의견 수렴 후 이르면 8월 해제될 것"이라며 "사업성 결여 등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 결정됐더라도 추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 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종합계획 용역 착수

광주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광주 인구정책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의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7명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인구 비중이 낮아진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연구용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5개년의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대해 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이 내년 5월초까지 수행한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용역수행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키로 했다. 착수보고회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종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전략 확장 구체화 나서

김영록 지사 실국장 토론회
국가계획 반영 사업 발굴 당부

전남도가 민선 7기에 내건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사업을 발굴해 정부예산에 반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토론에서 "전남 새로운 천년 비전으로 제시한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보다 확장하고 구체화하는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 예산을 꼭 따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중심으로 에너지, 투어, 바이오, 트랜스포트, 시티, 5대 프로젝트를 우선 제시했지만, 이외에도 전남에는 블루자원이 많다"며 "각 실국별로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 전략을 보다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블루 이코노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바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사업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집요하고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각 실국은 8월 초까지 블루 이코노미 관련 프로젝트, 사업, 정책 등을 발굴해 관련 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규제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WTO 협정 위반이라 생각한다"며 "일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넘어 국민적 결집을 통해 일본을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섬과 해양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섬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행사가 치러져야 한다"며 "섬의 숨은 매력과 섬 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등 섬의 무한한 잠재력을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명량대첩축제 '이벤트 어워즈' 우수상

전남을 대표하는 호국문화 역사축제로 매년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하는 명량대첩축제가 23일 열린 '2019 이벤트 어워즈(EVENT AWARDS)' 시상식에서 파이오니어(Pioneer)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9 이벤트 어워즈'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지난 1년 동안 개최된 공공·기업 행사 가운데 창의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행사에 대해 각 계각층의 전문가가 '기획력 및 창의력, 관련 분야 전문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도'를 심사해 시상한다.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 주최한다.

명량대첩축제는 지난 5월 '2018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에서도 호국문화축제 부문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이번 우수상 수상으로 전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 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 울돌목 일원(진도 녹진관광지, 해남 우수영관광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진감 넘치는 해전 재현과 출정식, 해상퍼레이드, 만가행진, 평화의 헌화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해군 함정 탑승 체험과 가족이 함께하는 조선수군학교, 조선수군 무예대회 및 무예 버스킹, 명량 캠핑존 등 체험거리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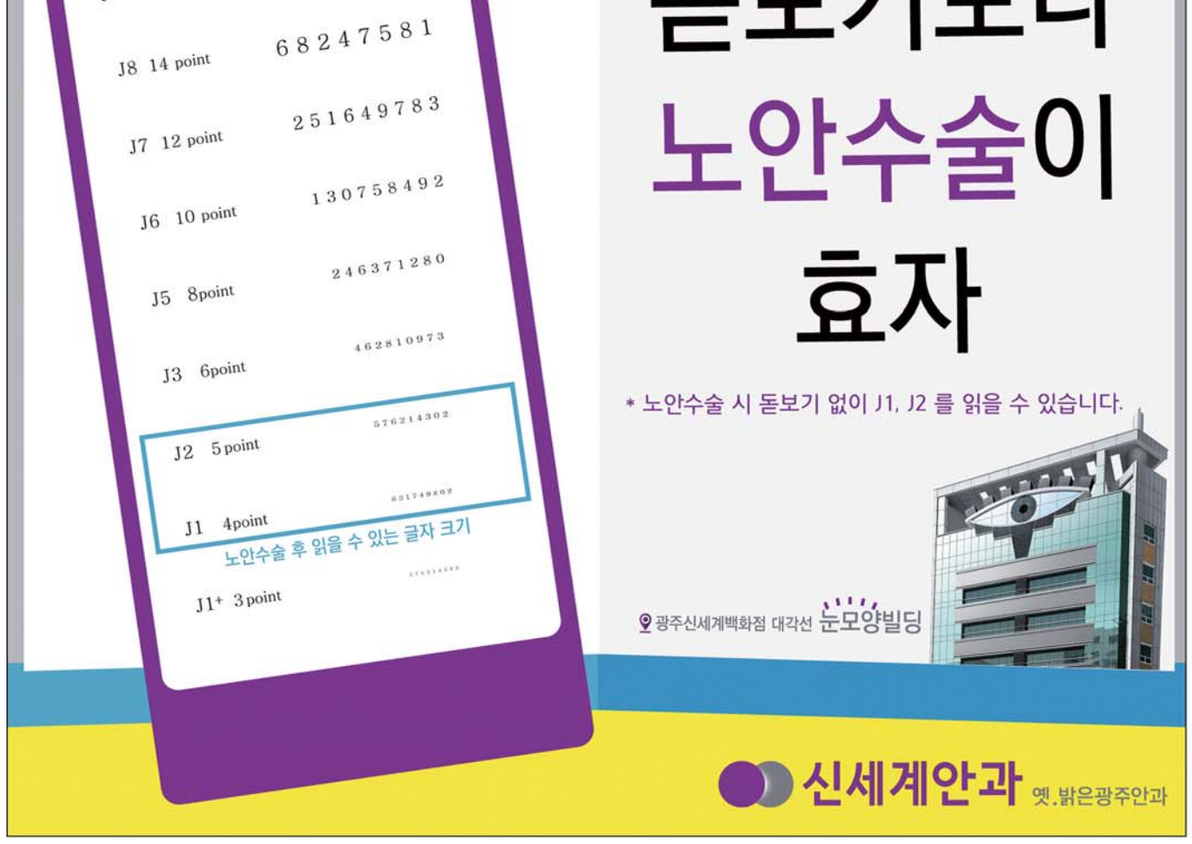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느림보 경전선 체험 책 펴내 전국에 알려

전남도가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전을 직접 체험한 수기를 '느림보 한나절 체험'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었다.

느림보 열차 체험은 지난 4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도민명예기자단, SNS 서포터즈단, 민원메신저, 생활공감 모니터단, 청년의 목소리, 전남도립대학교 학생, 전문가 패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도민 170여 명과 함께 목포에서 부산까지 393분 동안 388㎞를 달린 행사였다.

체험기에는 추진 배경, 체험 내용, 각종 방송 및 신문에 보도된 내용, 체험 후기 등이 실렸다.

특히 경유지인 목포~무안~함평~광주 광산~화순~보성~순천~광양 등 시장·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지역 주민의 염원, 부산 부전역에서 재부산호남향우회원의 고향 발전을 바라는 환영행사 장면도 포함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